

# 中 코로나 재확산 우려...관광명소 속속 폐쇄

### 경제·사회 정상화 빠르게 밀어붙이던 정부 태세 전환 산발적 신규 환자 발생...대도시 개학 또 기약 없어져

코로나19 저지전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자평하면서 경제·사회 정상화를 빠르게 밀어붙이던 중국이 다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을 속속 폐쇄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태세를 전환한 것은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급속히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도 산발적 신규 환자 발생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상하이시에 따르면 상하이시 대표 관광지인 동방명주(東方明珠)가 이날부터 다시 문을 닫는다. 상하이의 영대고층 건물인 상하이타워와 진다오(金茂)빌딩 전망대도 이날부터 영업을 중단한다. 상하이시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고 여행객들의 건강과 안전

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운영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상하이를 상징하는 관광지인 이들 시설은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이 급감한 가운데 지난 12일 영업을 재개했는데 18일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됐다.

중국의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환타이치(幻太奇)해양공원을 비롯한 산시성 시안(西安)의 3대 아쿠아리움은 29일부터 다시 문을 닫았다. 안후이성 추저우시에 있는 명산인 랑야산도 29일부터 관내 관광지 개방을 다시 멈췄다.

복수의 성(省)급 지역에서 유사 조치가 잇따른 것으로 볼 때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만간 중국 전역의 유명 관광지와 공원이 추가로 문을 닫는 일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일련의 움직임은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공식 통계상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이 급감하자 내달 8일 우한(武漢) 봉쇄를 해제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경제사회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이미 1~2월 중국 경제가 코로나19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조속한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이런 상황 변화를 두고 ‘방역전’이 ‘경제 보위전’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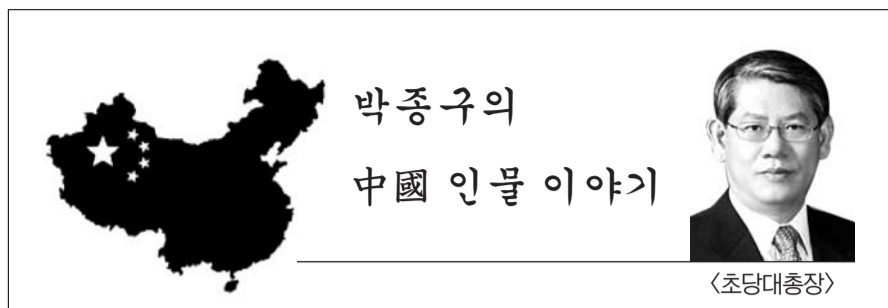
이에 따라 주요 공장 등 산업시설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고 백화점·할인마트 등 상업 시설에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관광지에도 다시 인파가 몰리고 최근 들어서는 영업 허가가 미뤄지던 실내 키즈카페와 피트니스센터, 수영장까지도 문을 열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앞두고부터 중국 당

국이 상황을 다시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나타났다. 국가라디오 텔레비전총국(광전총국)은 긴급 지침을 내려 지난 27일부터 다시 문을 열 영화관이 계속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상하이 등 대도시 영화관들은 두 달 만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이는 없는 일로 됐다.

최근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견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졌다. 지난 26일, 28일, 29일 저장성, 허난성, 간쑤성에서 각각 ‘내부 환자’가 한 명씩 발견됐다. 지역 사회 감염 환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잇따라 발견됐다는 것은 중국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제 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최근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공개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에 관한 우려가 커졌다. 중국이 공표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는 4만3000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26〉 정호

정호(程頤, 1032-1085)의 호는 명도(明道)로 허난성 위양 출신이다. 동생 정이와 함께 송나라 도학의 대표적 인물이다.

부친 정항이 강서성 남안의 판관으로 재직때 주돈이를 만났는데 그의 비상한 재주와 기상에 감동해 두 아들을 보내 배우도록 했다. 주돈이는 이정(二程)에게 늘 공자와 안자가 즐거워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탐구케 하였다.

1057년 진사시에 합격해 주로 지방관으로 활약했다. 1070년 여공저의 추천으로 중앙에 진출했다. 신종 즉위 후 저좌좌랑이 되었으나 재상 왕안석과 갈등을 빚어 다시 지방관으로 내려갔다. 신종에게 논시사차자(論事書)를 올려 국가의 10가지 중대사를 건의하

자 불안해진 세리는 은근히 다음과 같이 협박하였다. “내가 관의 재물을 도둑질했는데 부임한 관리가 그걸 밝혀내 공지에 몰리면 필시 살인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웃으며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런 말까지 한단 말이오. 귀하께서 국록을 먹는데 어찌 도둑질을 할 수 있겠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어김없이 사형에 처해야 될 것이오. 어찌 감히 살인을 할 수 있겠소.” 세리는 겁을 먹고 스스로 도용한 관의 재물을 상환하였다.

1063년 강녕부 상원현 주부로 부임했다. 어느 여름철 저수지 제방이 무너져서 규정대로 하면 현에서 강녕부로 보고하고 강녕부는 전문사에 품의한 연후 필요한 인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한달 이상 소요된다. 선생은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벼들이 말라

## 동생 정이와 함께 송나라 도학 대표 인물

었다. 1085년 철종 즉위 후 재상으로 복귀한 사마광이 종정사승으로 삼았으나 병사했다.

주자는 맹자 이후 끊어진 도를 이정이 다시 이었다고 평가했다. 공자-증자-자사-맹자의 도통이 이정을 걸쳐 주자에게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 정호는 심학(心學) 일파의 선구자로 불리는데 심학은 육구연이 계승하여 왕수인이 완성하였다.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이(理)로 정의하고 사람은 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해 순응해야 한다는 성즉이(性即理)를 주장했다. 정호는 이를 일종의 자연적 추세로 보았다. 한 사물의 리는 그 사물의 자연적 추세이고, 천지만물의 리는 천지만물의 자연적 추세다. 철학자 평유란의 해석에 따르면 인(仁)은 만물과 혼연하여 같은 몸이 되었다. 의·예·지·신 모두 인이다.

만물과 일체라는 도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보존하고 성실하고 조심스럽게(誠敬) 이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 그의 사상은 이정전서(二程全書)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는 사서 중 대학(大學)을 중시했다. 대학을 공자의 유서(遺書)로 규정해 이 책에 따라서 학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058년 섬서성 후셴현에 근무할 때의 일화다. 부패한 세리(稅吏)가 있었는데 살인도 할 수 있다고 호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그가 부임하

죽게 되고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 백성을 구하려다 죄를 얻게 된다 면 아쩔 수 없는 일이다.” 재량이 독을 막은 덕에 큰 풍년이 들었다.

영종 4년(1067) 진정현령이 되었다. 백성들이 반드시 효제충신(孝節忠信)의 도리를 배우게 하였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백성들이 서로 돕도록 하였다. 질병자들도 모두 봉양하였다. 마을에 학교를 세웠고 시간이 되면 촌로들을 불러 논의하였다. 학생들을 정성껏 가르쳐 임기를 마치고 떠날지 10년 만에 유학자가 수백명이나 배출되었다. 진정현은 인구가 만호나 되는 데 3년동안 강도도 없고 싸우다 죽은 자도 없었다. 백성을 지극히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을 뜻하는 시민여상(視民如傷)을 좌우명으로 삼아 선정을 베풀었다.

신종때 재상 왕안석과 같이 일할 때 일하다. 왕안석이 다른 사람에게 매우 화를 내자 조용히 말하기를 “천하의 일은 한 집안 내의 사사로운 의론이 아닙니다. 공은 기운을 화평히 하시기 바랍니다.” 왕안석이 부끄러워하였다. 한번은 돌이 생각이 다르자 왕안석이 “공의 학문은 큰 벽과 같소.”라고 말했다. 이에 “재상의 학문은 바람을 잡는 듯합니다.”고 답하였다. 왕안석은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내쫓지만 그만은 자리를 지켰다.

## 부활절 정상화 주장한 트럼프 사회적 거리두기 4월말까지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4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보름간 설정했던 지침의 만료기간인 이달 30일이 다가옴에 따라 4월 12일 부활절까지 미국의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피력했지만 결국 보건 전문가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치명률이 2주 이내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애초 정상화 시기로 염두에 둔 부활절 무렵에 치명률이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침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1일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수백만 명의 감염자와 10만~2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美 로드아일랜드주 ‘드라이브인 미사’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존스턴의 ‘은총의 성모’ 성당에서 29일(현지시간) 주치자에게 모인 신자들이 차내 라디오를 켜놓은 가운데 피터 가우어 신부가 주일 미사를 봉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가우어 신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회가 제한되자 지난주부터 ‘드라이브인(Drive-in) 방식의 미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 “일본, 한국·미국·중국 체류 외국인 입국거부 방침”

아사히 보도...“유럽도 대상”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중국·미국 전역, 그리고 유럽 거의 전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미즈기 와’(水際)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미즈기와는 해외 감염원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아사히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외부성은 30일 이들 지역의 감염증 위험정보를 ‘레벨3’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레벨3’은 자국민의 방문을 중지하라고 권고하는 단계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도 입국 거부 및 방문 중지 권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조치가 취해지면 최근 2주 이내 대상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